

보도시점 2023. 12. 27.(수) 06:00 배포 2023. 12. 26.(화) 16:00  
12. 27.(수) 석간

## - '23년 농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 벼 재배면적 감축과 전략작물직불로 가루쌀 농가당 301만원 소득지지 효과



- 식품업계와 라면·식빵·오예스 등 다양한 가루쌀 제품을 소비자에 선보여  
- 내년에는 재배를 1만ha로 확대하고, 산업 활성화 위해 169억 원 투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을 통해 ①쌀 수급 안정과 ②농가 소득 제고, ③수입 밀 대신 국산 가루쌀의 식품 원료 활용 기반 마련 등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 가루쌀은 재배 방식이 쌀과 같지만, 쓰임은 수입 밀가루를 대체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기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고 식량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전략작물 품목

올해는 2천ha의 밥쌀 재배면적을 가루쌀로 전환하여 쌀 수급 안정에 기여했고 전략작물직불제의 도입으로 가루쌀 재배 경영체당 약 301만 원의 경영안정 지원 효과\*가 있었다. 또한, 해태제과·에스피씨(SPC)삼립·하림 등 식품기업과 가루쌀 제품을 출시하고, 지역 제과점은 신메뉴를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으며, 스타벅스·롯데제과 등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 가루쌀 재배면적 2,042ha(이모작 1,418ha, 단작 624ha), 경영체 1,148개(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기준)

❖ 가루쌀 제품개발 협력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태제과) 오예스 위드미(with米) 개발하여 대형마트 등 판매</li> <li>■ (성심당) 마라미(米)고로케 등 개발하여 판매</li> <li>■ (그랜드 하얏트 서울 델리) '스트로베리 쇼트 라이스 케이크' 등 제품 개발하여 판매 중</li> </ul>	  <p style="font-size: small; text-align: center;">&lt;라이스케이크&gt;      &lt;오예스with米&gt;</p>

농식품부는 내년도에도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새롭게 조직된 '전략작물육성팀'을 전담조직으로 하여 가루쌀 정책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 가루쌀 산업 활성화 관련 예산(전략작물직불 제외) : ('23) 71억원 → ('24) 169억원

우선, 전문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가루쌀 재배면적을 전국 1만ha로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대규모 재배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벼 재배면적 8천ha를 신규로 추가 감축하여 선제적으로 쌀 수급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식품 원료 공급 기반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가루쌀 재배면적 : ('22) 0.1천ha → ('23) 2천ha → ('24) 10천ha  
가루쌀 전문생산단지 : ('23) 38개소, 4개도 → ('24년) 130개소, 8개도

전략작물직불제는 가루쌀과 밥쌀의 순수익 차를 고려하여 단가를 인상\*하여 가루쌀 재배 농가의 경영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생산 목표량을 감안하여 예산을 사전에 확보하여 농가의 판로와 식품업계에 원료 공급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 가루쌀만 재배 시 ('23) 100만원/ha→('24) 200, 밀 등과 이모작 시 ('23) 250만원/ha→('24) 350

식품업계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올해 신규로 추진했던 제품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가루쌀 소비처를 라면·빵·과자 등 수입 밀가루 다소비 품목과 함께, 식물성 대체유 등 새로운 식품으로 확장하고, 수출 전략 품목도 발굴한다. 이를 통해 가루쌀의 대규모 소비 생태계를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 : ('23) 40억 원, 15개 제품군 → ('24) 51억원, 28개 제품군  
'24년 신규: 가공확대지원사업(제분·유통 비용 지원), 원료매입자금(용자 지원)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가루쌀 활성화 정책은 우리나라 농업과 식품산업의 혁신과 도약을 이끌어 갈 중요한 발판으로,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향상의 효과가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주춧돌 삼아, 내년에는 농업인·유관업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하며 다각도의 정책지원을 통해 가루쌀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2023년 가루쌀 제품 출시 내역(10개사 제품 42종)
- 2.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내역(19개 지역제과점 신메뉴 76종)
- 3. 인포그래픽

담당 부서	식량정책관	책임자	과 장	안유영 (044-201-2911)
	전략작물육성팀	담당자	사무관	임연화 (044-201-2912)



**붙임 1**

**2023년 가루쌀 제품 출시 내역(10개사 42종)**

업체명	제품소개	
농협경제지주	쌀칩 2종, 쌀로팝 2종	
미듬영농조합법인	화엄사 라이스칩 등 과자류 4종, 비건버거 등 빵류 12종	
SPC삼립	가루쌀 미식빵 가루쌀 미취당시에	
에코맘의산골이유식	아기 과자 2종	
호정식품	우리쌀약과 1종	
대두식품	가정용 카스테라 믹스 1종	

업체명	제품소개	
이가자연면	비빔칼국수, 장칼국수	
하림산업	가루쌀 라면 2종	
성심당	마라미고로게, 김치볶음빵, 초코미마들렌, 쌀미쉬폰 등 11종	
해태제과	오예스 with米	

**붙임 2**

**가루쌀 제과제빵 신메뉴 개발 내역(19개 제과점 신메뉴 76종)**

연번	지역	상호명	대표자	개발제품	
				제품수	제품명
1	서울 (2)	하이그라운드제빵소 Cafe&Bakery 뚜르몽드	김거리 김근보	제과2	라이스프리카스테라, 샹티티베
				제빵2	클래식미(米)브레드, 가루미르방
2	부산 (1)	라이스베이커리	우자경	제과2	화이트쌀쉬폰카스테라, 가나슈초코롤케이크
				제빵2	흑미쌀식빵, 대파쌀베이글
3	대구 (1)	르베	배재현	제과2	NO글루텐카스테라, NO글루텐크림치즈파운드
				제빵2	백미가 현미를 맛난 식빵, 비건 건강빵
4	인천 (2)	토모루 까래몽베이커리	한상환 김봉수	제과2	허니 쌀카스테라, 백미쌀롤케이크
				제빵2	흑임자쌀식빵, 흑임자쌀 크림치즈팔빵
5	광주 (1)	브레드세븐	마칠석	제과2	피스타치오카스테라, 딸가카스테라생크림살롤
				제빵2	무설탕고구마쌀빵, 뉴욕롤3종
6	대전 (2)	하리하리베이커리카페 * 제빵월드컵 금메달(2016)	이창민	제과2	쌀떡카스테라, 쌀한과쿠기
				제빵2	탕종스폰지쌀식빵, 인천주악
7	세종 (1)	세종명가쌀빵	최창주	제과2	쌀콩쌀공, 타락케이크
				제빵2	투톤페스트리식빵, 누룽지소금빵
8	경기 (5)	콜마르브레드	김민철	제과2	쌀 치즈 카스테라, 썩설기
				제빵2	미(美)미(米)빵, 밥드라슈
9	경기도 (5)	에센브로트	안갑수	제과2	생크림카스테라, 프룬프룬
				제빵2	쌀모카빵 쌀치즈치즈
10	충북 (2)	바누아투과자점 * 제빵월드컵 금메달(2016)	박용주	제과2	대나무잎쌀쉬폰, 대통케이크
				제빵2	큐브쌀식빵, 통무화과쌀빵
11	충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스페이스인블랙홀, 토르타오헤비치즈
				제빵2	사과꽃피는동백섬, 아기꿀벌의생존기
12	경남 (1)	김태민 발효쌀빵	김태민	제과2	별꿀카스테라, 오렌지구겔호프
				제빵2	라이스포카치아식빵, 쌀감파뉴
13	경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말차 카스테라, 오디타르트
				제빵2	에그치즈식빵, 가나슈페스츄리
14	경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배쌀카스테라, 쌀B.A.P마들렌느
				제빵2	동충하초누룽지쌀식빵, 잇수고구마쌀빵
15	경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시루카스테라, 구운쌀도넛과다양한글레이즈
				제빵2	흑미/흑임자크림쌀식빵, 고르곤쌀빵
16	경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요거트쌀카스테라, 쌀레몬케이크
				제빵2	호두쌀식빵, 구운쌀과베기
17	경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쌀베이글, 바나나쌀빵
				제빵2	쌀식빵, 쌀공갈빵
18	경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화이트쌀카스테라, 코코넛쌀전병
				제빵2	옥수수쌀식빵, 카레쌀빵
19	경남 (1)	하루베이커리	이경무	제과2	쇼콜라카스테라, 용암비스킷
				제빵2	비바찰치즈식빵, 흥단베이글

**붙임 3**

**인포그래픽**

2023 민생정책  
본부기

23년 농림축산식품부 민생정책 돋보기

#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정책으로 가루쌀 농가당 301만 원 소득지지 효과

**정책**

**가루쌀 산업 활성화,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해**  
쌀 수급 안정과 국산 식품 원료 활용 확대

**성과**

**수입 밀 대신 국산 가루쌀  
식품 원료 활용 기반 마련**

- 식품업계와 라면·식빵·오메스 등 다양한 가루쌀 제품 출시
- 지역 제과점과 신메뉴 개발 및 스타벅스·롯데제과 등과도 협력 관계 구축

\* 가루쌀 재배면적 2,042ha (이모작 1,418ha, 단작 624ha)  
\* 경영체 1,148개(전략작물직불금 지급 기준)

**2024년 가루쌀 산업 도약  
기반 마련**

- (전략작물직불 제외) 가루쌀 산업 활성화 관련 예산 확대 **71억 원** → **169억 원**
- 가루쌀 재배면적 확대 **2천ha** → **10천ha**
- 전략작물직불제 단가 인상  
가루쌀만 재배 시 **100만 원/ha** → **200만 원/ha**  
밀 등과 이모작 시 **250만 원/ha** → **350만 원/ha**
- 식품업계 협력 강화  
가루쌀 제품개발 사업  
**40억 원, 15개 제품군** → **51억 원, 28개 제품군**

**농림축산식품부**